

성탄주일
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마태복음 18~25>



송 남 현 목사 (오사카제일교회)

매일 아침 발행되는 신문에는 일기예보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일기예보가 평소와 달리, 유난히 크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기예보의 내용도 상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특별히 강조하려는 일기예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탄생이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똑같은 흐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어 신공동역 마태복음에는 탄생(誕生)이라는 단어가 1장 18절(한:나심)과 14장 6절에 2번 나옵니다. (한:생일) 그러나 2곳에서 말하는 탄생은 전혀 다른 내용의 탄생입니다. 왜냐하면 1장 18절의 탄생은 예수의 탄생이고, 14장 6절에 나오는 탄생은 혜롯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14장을 심도있게 읽으면, 예수의 탄생과 혜롯의 탄생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1장에서 예수의 탄생 과정과 목적을 말하고 있지만, 14장에서는 혜롯의 탄생 과정과 목적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예수의 탄생 과정과 목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신앙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강조하는 신앙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1장은 18절에서, ‘예수의 탄생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표적과 기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태시킬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른 언어(방언)들로 말하게 하실 수도 있으며(행2: 4), 어디에 가겠다고 목적지를 결정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행8:29).

사도행전은 바울이 전도(선교)여행을 하는 곳에서 여러차례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장에서, 바울은 나면서 걸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어나 걸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성령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마태복음은 1장은 21절에서 ‘예수의 탄생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대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차 있었고(마태23:28), 제사장들조차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이 성전 안에서 매매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마태21:12).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막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은 1장 22절에서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은 예수의 탄생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탄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군대에 추격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보다 더 큰 방주가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위로 내미는 것이 위기탈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 바다의 물은 좌우의 벽이 되고, 육지가 만들어졌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방주가 없이도 바다를 건너 갔습니다. (출14:29)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수십년, 수백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벧후 3: 9)

성탄절을 즈음하여 어디선가 새한일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연주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곡을 들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탄생 과정과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구유가 그려진 일러스트와 마태복음 1장 18절~25절 말씀이 함께 있는 성탄절 카드를 보낸다면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있는 성탄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1:23)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

10名様～20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込	平日	休日
シングル	¥6,700	¥6,200
ツイン	¥10,500	¥9,800
トリプル	¥13,500	¥12,600
※朝食¥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아시아선교대회 개최 미얀마에서 행했으며, 허백기목사가 참가



2017년 10월 12일~15일의 5 일간, 미얀마 양곤의 프랑크 오디트리움에서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에 의한 아시아 선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1994년에 한국에서 열린 마지막 아시아선교대회부터 24년만이며, CCA 창립 60주년 기념을 겸해서 개최된 것이다. 이 역사적인 회의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6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였다. 일본의 각 교파 단체에서는 총 9명, 한국에서는 무려 30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는 허백기목사가 참가했다.

〈아시아에서의 진리와 빛이란 무엇인가를 예언적으로 증거하는 여정을 함께〉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의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고찰들이 발표되었고, 또 아시아 각지에서 기독교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여러 시도들에 관한 보고들이 있었다. 그 분야는 여러 갈래에 이르렀다. 종교간 대화와 평화 구축, 환경파괴와 경제적 부정의의 문제, 이주민 정착과 소수자의 권익확보, 기독교 신앙의 탈식민지화와 토착화 등이다.

한국에서는 PCK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이홍정목사(11월에 차기 NCCCK 총무 취임이 내정)가 북한의 정황과 한반도 분단의 극복에 대해서 발제를 했다.

일본에서는 동북헬프 사무국장인 가와카미 나오야(川上直哉)목사가 피해지역에서 이루어진 종교를 초월한 장례의 실천과 후쿠시마 폐폭 피해 지역에서의 돌보는 활동에 대한 발표를 했다.

회의는 마지막 16일에 무려 10페이지에 이르는 〈아시아선교 선언〉를 채택했다. 그 중에서 CCA는 〈참 선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자를 향한 관용과 치유의 능력을 주신다. 그 러므로 우리는 갈등과 긴장 가운데 평화를 이룩하고 다른 신앙

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도 조화를 이루는 사명을 띠는 것이다〉라면서 종교와 정치이념의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끊이지 않는 아시아의 현실을 기독교의 선교과제로 삼았다.

에큐메니칼대회에 참여할 때마다 기대되는 것이 예배였다. 일정은 매일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끝나는데, 그 때마다 각 교파가 인도하는 다양한 예배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간략화된 설교중심의 예배순서에 익숙해 있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신선한 경험이었다. 특히 압권이었던 것은 마지막 날 아침에 드려진 연극적인 예배였다. 무대에서는 전쟁, 폭력, 성추행과 같은 형태를 취한, 우리 안에 내재되는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관계를 갈라놓았는가를 역동적으로 표현하였고,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이번 회의의 중요 테마 중 하나인 〈십자가의 영성의 재현〉이며, 그 과제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CCA 아시아선교회의에 모인 우리 하나 하나의 관계성이다〉라는 줄거리가 담겨졌다.

폐회예배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는 성찬식이 베풀어졌는데, 영광스럽게도 지명을 받아 그 사식의 일부를 내가 맡게 되었다.

우리가 미얀마를 생각할 때 오랜 군사 독재와 아웅산 수치씨의 연금, 그리고 요즘 로힝야라 불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학대 등으로 부정적이고 불안한 이미지를 갖기가 쉽다. 그런데 양곤시내를 산책하면서 느낀 인상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넘친 활기찬 길거리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눈은 반짝이고 미소가 끊이지 않으며 모두가 늠름해 보였다. 그리고 암도적인 불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에서 기독교회가 뚜렷한 존재감을 발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로움 안에서도 부정적이 되기 쉽고, 크리스챤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 오히려 물음을 받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총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보고: 허백기)



토의에서 제기된 선교사 위기 관리와 문제해결을 위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차기 회의에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교단의 실례와 규칙 등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2018년 3월 8일~9일에 한국에서 가지기로 했다.



제4회 한일 5교단 선교사 에 관한 실무자 회의 개최

2017년 11월 27일, 28일 도시샤비 와코 리트리트 센터에서 한일 5교단 선교사에 관한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주로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측의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PCK), 기독교대한감리회(KMC), 한국기독교장로회(PROK)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선교사 파송, 훈련, 현지적응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로서, 금번 회의에는 일본기독교단 서기 쿠모시카리 토시미(雲然俊美)목사가 지금까지의 경과 보고와 함께 앞으로의 토의 내용(과제)에 대하여 발제하였고, 재일대한기독교회 서기 조영철목사가 선교사로서의 경험과 문제제기 등을 발제하였다.

한국여름단기교육프로그램 전국여성회에서 6명 참가

작년에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여전도회가 주최하는 제 61회 여름 단기 교육(2017년 8월 7일~10일)에 전국교회 여성연합회로부터 6명이 참가하였다. 3박 4일 동안 한국 전역에서 모인 200여명의 여성들과 함께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드 스케줄이었지만 은혜로운 배움의 시간을 보냈다. 강의는 「아시아 선교와 에큐메니칼 운동」, 「하나님의 마음 알기」, 「개혁신앙과 조직신학」, 「여성과 교육」, 「21세기 기독교 영성」, 「요한계시록」 등의 다양한 강의 내용으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강의 중 특히 인상에 남은 것은 ‘인도의 테레사 수녀’로 불렸던 서서평 선교사의 이야기였다. 어머니로부터 3번 버려지는 가슴 아픈 경험을 갖고서도, 그 절망 속에서 십자가를 사모하면서 고통과 슬픔을 믿음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고 사명을 받아 간호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다.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여성과 고아들을 위해 섬긴 그녀의 신념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다고 한다.

우리 제일동포도 역사적 배경이나 일본 사회에서의 갑갑한 환경 등의 문제는 있지만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본국을 떠나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앞으로의 일본에서의 선교와 차세대에로 신앙계승 등 고칠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번 연수회는 개인, 각 교회, 각 지방회, 전국여성회, 세계 선교는 모두 하나이며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기회가 되었다.

(보고: 이시바시 마리에)



고베교회에서 일일연수회 「전심으로 찬양하자」라는 주제로

서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의 [일일연수회]가 10월24일(화), 고베교회에서 개최되어 33명이 참가했다.

개회예배에는 서부지방회장 한세일목사의 「우리의 사랑」(렘 9: 23~24)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있었다.

고베교회 여성회의 정성어린 점심식사 후, 코베동부교회에서 성가대를 지도하고 있는 차현숙집사를 강사로 「전심으로 찬양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참가한 모든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 은혜가 충만한 여순회였다 (보고·운풀자)



서부지방회

이상덕목사의 위임식 미요시교회에서 성대히 거행

11월 11일(토), 서부지방회 미요시교회에서는 이상덕목사의 위임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나카에요이치목사의 사회로 서부지방회 부회장 이중재목사의 「성령에 충만한 교회」(사 2:42-47)이라는 설교로 예배를 드렸다.



위임식에는 서부지방회장 한세 일목사의 사식으로 위임목사에 대한 서약과 미묘시교회 신도들에 대한 서약과 선언이 있었다. 그 후, 위임목사에 대한 권면을 양영우목사가, 신도들에 대한 권면을 주종중장로가 하였다. 또 축사로는 지방회를 대표하여 부회장인 조순원장로, 일본기독교단을 대표하여 오쓰키준코목사(조계교회), 파견교단을 대표하여 조사옥목사가 축사를 하였다.

위임받은 이상덕목사는 197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01년 감리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중앙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기독교단 千葉本町교회로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2017년 4월29일 서부지방회에 가입하여 5월에 미요시교회에 부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오윤정과 두 자녀가 있다. **(보고:나카에 요이치)**

(보고:나카에 요이치)



邑久光明園가족교회 방문 관서성가대 연합회와 오카야마교회 합동으로

지난 2017년9월18일에 관서지방회 성가대 연합회(관성연)이 岡山 邑久光明園 가족교회를 방문하여 합동예배를 드렸다. 관성연 단원과 오카야마교회 등 9교회 31명의 신도가 함께 하였다.

예배(설교:김종권목사), 찬양(지휘:윤성택장로), 2부 순서로는 가족교회 신도들의 신앙의 역사 및 간증을 들으면서 신앙의 힘과 깊이를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보고·윤선태)



<연말 연시 업무 안내>

총회 사무실은 하기 기간에 사무실 업무를 휴무합니다.
2017년 12월 25일 ~ 2018년 1월 4일

일본그리스도교회와의 선교협약 체결 20주년 기념집회 개최 청년선교를 테마로 청년들의 우정 기르다

11월23일(목) 일본그리스도교회 오사카 히메마츠교회(大阪姫松教会)에서 선교협약 체결20주년 기념집회가 열려, 양교단에서 64명이 참석하였다.

큰 테마는 청년선교로서 집회의 구성은 양 교단의 청년들이 반년 이상 매주와 같이 회의를 하여 테마를 「부족한 자가 부족함이 없는 자에게」라고 설정하였다. 일본그리스도교회 대회의장 토미나가켄지(富永憲司) 목사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는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고 선교협약을 가진 양교단의 새로운 세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곤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나갈 것을 힘차게 전하였다.

인사에 나선 총회장 김종현목사는 양 교단이 걸어온 역사를



마이너리티 선교센터의 걸음

주사 김 신 야 목사

마이너리티 선교센터를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국내외 교회와 여러 단체의 지원을 받아 센터는 지난 4월 개소한 이 후 인종주의와의 투쟁, 유스프로그램, 화해와 평화의 영성개발 활동을 기둥으로 삼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센터는 헤이트스피치를 반대하는 시민활동에 계속 연대해 왔으며 재일 외국인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회내 집회와 연구회에 참여해 왔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활동으로서는 매달 열려지는 카페를 통해 비폭력, 일제시대에 벌어진『학술인물관사건』 등 마이너리티와 폭력을 주제로 삼은 학습회를 꾸며왔다. 9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1회 마이너리티 유스포럼에는 필리핀, 한국을 비롯하여 국내외 청년 약 20명이 모여 오사카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으로 동원되어 온 마이너리티의 생활사를 배우기 위하여 오키나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카이쇼쿠와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진 이쿠노쿠에서 현장답습을 하였으며, 또한 아사지타케시(朝治 武/오사카 인권박물관 관장)로 부터 피차별 부락 출신자들의 어려운 역사와 그들이 겪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고, 김경호씨(요코스카교회, 일본 근현대사 연구자)로 부터는 1903년에 일어난『인류관』사건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참가자들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그림으로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 웍샵을 통해 그룹으로 온몸을 통해 표현함으로서 배움을 입체화 했다.

또한 독일 NPO『얼굴을 보여라』가 개발한 인종주의를 생각하게 하는 카드게임『백인은 럽을 할 수 없다』를 체험하여 일본에서 이 교제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내년에

이야기하면서 불행한 과거의 상하관계를 극복하고 지금은 대등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함께 기쁘하고 새로운 세대를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자고 하였다.

오사카 히메마츠교회의 정성스러운 식사를 나눈 후, 양 교단의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신앙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어느 쪽도 자기의『부족함』의 생에 대한 고백으로 충만하였고, 동시에 그『부족함』이 채워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준비과정에서 양 교단의 청년들 사이에 생겨난 우정과 신뢰는 앞으로 양 교단의 귀중한 보물이 될 것을 확신한다. 양 교단 청년들의 교류가 이것을 계기로 더 활발하며 오늘날처럼『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신앙을 바탕으로『함께 살아가는』동반자로서 걸어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신도위원장 김신야)

海外韓人教会教育と牧会協議会 第11次 大阪大会 参加者 募集

日 時: 2018年2月21日(水)16:00~24日(土)12:00

場 所: 在日大韓基督教会大阪教会(21日) 開会礼拝

同志社びわ湖リトリートセンター(22日~24日)

主 題: 「激動する歴史におけるディアスpora教会の時代的な使命」(エレミヤ29:1~14)

参加費: 2万円(3泊4日)、遠距離交通費一部補助あり。

募集人員: 20名程度 (総会任員、委員長、各地方会2名)

申請と問い合わせ : 金柄鎬総幹事(080-4377-3927)

는 포럼에 참가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교제의 일본관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다.

차별을 극복하는 배움을 성경과 신앙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센터는 차별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성경을 배우는『성경세미나』, 기도와 댄스, 연극, 가스펠 등 여러가지 신체표현을 통해서 다민족/다문화 공생을 실감할 수 있는 마당으로서의 에큐메니칼한 축제마당을 기획할 예정이다.

각각 이벤트나 활동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페이스 북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해 나갈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교를 이 땅에서 보다 풍요롭게 실행해 나가는 센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